

집중호우로 전국사찰 피해 '심각'

동두천 자재암, 서울 대성사, 부산 복천사 등 다수 총무원장 스님 "전통문화 보존위해 복구 노력" 당부 문화재청도 지자체 신청 받아 긴급보수비 지원 예정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사찰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우면산 일대 사찰과 동두천 자재암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자재암(주지 해만스님)이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은 620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유실과 시내를 흐르는 신천이 범람 위기에 처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자재암 역시 집중호우로 보타전 앞 측대가 1m만 남겨놓고 붕괴됐으며, 공양간을 비롯해 경내 곳곳에 토사가 유입됐다.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우면산 일대 사찰들도 피해가 심각했다. 서울 관문사(주지 영제스님)는 토사가 유입돼 피해를 입었으며, 사찰 버스도 빗물에 쓸려 내려가며 파손됐다. 서울 대성사(주지 법안스님)도 토사 유입 피해와 함께 전봇대가 쓰러져 전기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 보덕사(주지 자인스님)는 법당 오른쪽에 있던 요사채가 반파됐으며, 티끌불과 산신각 등이 산사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부산 복천사(주지 해문스님)의 경우 명부전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27일 산사태가 발

생하면서 명부전 벽면이 부서지고 토사가 명부전과 칠성각 등 주요 전각을 뒤덮었다.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훈성)도 집중호우로 지하층의 무료급식소와 장애인 아동 치료센터, 저소득 아동 방과 후 공부방 등의 시설이 침수돼 3억원 가량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서울 정릉 봉곡사, 서울 천축사, 강화 보문사, 양주 석굴암, 광명 금강정사, 과천 정혜선원 등도 토사가 유입되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에 앞서 익산 송림사도 지난 7월초 전북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경내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보물 822호 보관장이 매몰 위기에 처했으나 사찰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상황이다. 송림사는 문화재청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석축을 보강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가 확산되면서 복구 노력과 격려의 손길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은 지난 7월29일 피해가 심각한 동두천 자재암과 우면산 일대를 찾아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긴급구호봉사단은 지속적으로 피해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자재암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며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총무원 50여 명과 균경 150여 명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천년을 이어온 전통문화가 소실되지 않고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은 지난 2일 서울 관문사를 방문해 수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균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서초구사암연합회도 지난 7월30일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 입은 사찰을 방문해 격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육군 53사단도 지난 2일 공병대 군 장병 100여 명을 부산 복천사로 파견해 복구 작업을 펼쳤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등 보물 1호 흥인지문, 사적 497호 이화장 등 국가지정문화재 30여 곳에 현 지조사단을 파견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국가 지정문화재 가운데 피해가 큰 문화재에 대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비를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최병문 부산지사장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두천 자재암에서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위). 아래는 부산 복천사에서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육군 53사단 장병들. 김형주 기자

'가야산 골프장' 폐지 결정 환경부 고시...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 환영 논평

환경부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을 폐지하고 고시했다. 20여년을 끌어온 가야산 골프장 사업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21일자 관보에 골프장을 삭제한 가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날 고시에서 치악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계획도 폐지했다.

또 "1% 국민의 오락을 위해 야생 동식물의 살터이자, 온 국민의 휴식처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골프장 사업이 생태에 파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삶터와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일임을 길고 긴 시간 동안 눈물 나게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들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며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라며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전통문화 체험해보세요" 여름방학 어린이대상 박물관 프로그램 '다채'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 고궁박물관(관장 정중수)은 오는 26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중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박물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에 대해 관련 유물을 살펴보고 조선왕릉 가운데 하나인 태릉을 탐방하는 '속삭속삭 왕릉이야기' (8월16일), 왕의 일생을 통해 조선왕실의 이야기를 배우는 '임금님 알고 싶어요' (8월22일), 전시 유물의 복제품이 실린 보물수레와 함께 대표 유물을 관람하는 '움직이는 보물수레' (8월26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가족 교육프로그램으로 '창덕궁, 아름다운 덕을 펼치다' 특별전과 연계해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찰칵찰칵 후원 4경' (8월13일, 27일), 내의원 의관이 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도전! 내의원 어의' (8월13일), 정통 궁중음식을 체험하는 '가족과 함께 만드는 궁중음식' (8월13일, 27일)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수)은 8월 동안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에 맞춰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실시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8월17일, 31일),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 문화' (8월17일), '서역남도의 불교 유적' (8월17일), '다시 보는 백제-철의 나라' (8월17일), '한국 와전문화의 흐름' (8월31일), '신라 금속공예의 결정체, 황금 귀걸이' (8월31일), '양행어사 이야기' (8월31일)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인도 다람살라서 의료봉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 및 문화교류활동을 벌였다.

동국대 LA캠퍼스 서운교 총장을 비롯한 의료봉사팀은 다람살라 지역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김영중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우리 대학에 20만 달러를 기부한 달라이라마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불교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의료봉사에 나섰다"



며 "학교 건학이념인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10월9일, 서울과 대전서

문화재 수리와 보수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29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 오는 10월9일 서울과 대전 등 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자격시험은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6개 종목에서 치러지며, 문화재 관련 법령과 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한국 건축사, 조경사, 화학, 토양학 등 응시 전공별로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2010년도 제28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나 한국전통문화학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원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엄태규 기자**

은정학술상 및 은정장학금 선발계획 공고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불교계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불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은정학술상 및 은정장학금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분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발인원
은정학술상	▶불교학 관련 학위논문 및 저·역서를 은정학술총서로 출간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자	○명
학술연구인력 장학금	▶각 300만원 지원	▶불교학 관련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명
불교단체 장학금	▶각 100만원 지원	▶불교언론, 신행단체, 불교시민단체 등의 종사자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명

■전형방법(서류전형) : 이메일(bulgyo2010@naver.com)과 우편에 한함
 • 기간 : 2011년 8월 27일(토) 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02)515-9351 (우)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2번지 은정빌딩 601호

■기타사항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eunjung.or.kr) 및 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 해드립니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행자님(예비스님) 모십니다

울산바위와 흔들바위가 어우러진 설악산에서 발심 출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행자님을 모십니다.

- ◆ 출가 수행자로서 일생을 살아갈 굳은 의지와 신심을 가지신 분
 - ◆ 출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큰 발심을 하신 분
 - 교육환경 : 신흥사 출신의 전문 강사스님들이 사미(니)율의, 기초교리, 초발심자 경문, 염불실습 등을 각각 교육하고 있습니다.
 - ※ 특별혜택 : 행자교육원 수료 후 스님이 되신 후에 기본교육기관(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기본선원, 강원)에 입학하시면 졸업까지 장학금 전액을 지원 해드립니다.
- 기본교육기관 졸업 후 원할 경우 유학 및 공부와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독신남자
 - ◆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재(고)졸 미취학자는 사찰에서 검정고시 준비가능
 - ◆ 이혼일 기준 6개월 이상이며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자
 - ◆ 중풍, 나병, 백치, 중성, 불구가 아닌 자
 - ◆ 전과가 없으며 문신 및 자해 흔적이 없는 자

☎ 문의처 033-636-7189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설악산 계조암